

속회자료--

2013년 3월 17일 주일 설교 요약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14)

"그분 앞에 서기 위하여"(To Stand Before the Lord)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데살로니가전서(1 Thessalonians) 2:19-20

1.

오늘 다룰 주제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도 재림의 주제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처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심판의 주제는 모두가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서적인 믿음에 바르게 서려면 용기를 가지고 이 주제를 대면해야 합니다. 비록 마지막 심판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기가 어렵고, 학자들마다 그리고 교파마다 이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심판에 대해 큰 줄기만이라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역사를 훑어 보면, 시대 사조가 두 극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질병이나 전쟁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면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집니다.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강경파가 득세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사회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반면, 전쟁이 그치고 질병이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면 자유주의가 득세합니다. 이것을 '진자의 법칙'(the law of pendulum)이라고 부릅니다.

심판에 대한 대중의 생각도 진자의 법칙을 따릅니다. 보수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지면 심판에 대한 설교가 많아집니다. 1차와 2차에 걸친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경제 공황이 지속될 때 보수주의가 득세했고 교회에서는 심판에 대한 설교가 자주 들렸습니다.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지던 시기에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대전이 끝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보수주의가 밀려나고 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반 세기 동안 교회는 희망의 복음과 긍정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침묵했고, "지옥은 없다"는 말이 신학자와 설교자의 입에서 자주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주제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심판의 주제를 싫어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악의 현실을 심각하게 대면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의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엮이면 봄날갈던 일상이 하루 아침에 칼바람 부는 겨울날처럼 변해 버립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초등학생 성폭행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내 아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심판을 저 세상에서라도 받아야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무고하게 희생 당한 사람들은 회복되어야 하며, 오직 악밖에는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심판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3.

저는 아직 재판정에 서 본 일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의 무죄를 확신한다 해도, 담당 변호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또한 승소를 장담한다 해도, 재판정에 서는 사람은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그 불안감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재판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도 인간인지라 언제나 진실을 완벽하게 가려내지는 못합니다. 둘째, 자신의 다른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셋째, 자신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대가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요 18:37)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본대로 판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최종 심판에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4.

하지만 심판의 결과를 생각하면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진하게 경험할 때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몸서리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고 나면, 아무리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판을 받는다 해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영광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실 재판관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인류를 품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가 겪을만한 모든 유혹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신 분입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20)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지금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5.

그분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재판관으로 서 있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영원한 형벌로 가는 길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인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따라서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해 질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다만,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은 면제 받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빈 손으로 주님 앞에 이른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영혼들입니다. 나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받은

영혼을 말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친 희생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과연 지난 세월동안 나로 인해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능력을 변화받은 영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헌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신음으로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인생은 오직 물질만을 위해 혹은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허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불을 헤치고 나오듯" 알몸으로 서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없다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리고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끝내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이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심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심판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는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옛 사람을 장사지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심판대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기다림과 환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분 앞에 빈 손으로 서게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우리의 구원이 "불을 헤치고 나오는 듯" 겨우 받는 구원이 아니라,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사랑과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통해 주님을 알고 변화받는 영혼이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몸에 난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심판자로 오실 주님,
그 날이 오기 전,
저희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
주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빈 손으로 서지 않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